

LG, 화학으로 시작 전자로 꽃피다!

1947년 럭키크림으로 시작 ... 플라스틱 · 합성세제 · 전자로 성장발전

LG그룹은 화장품, 치약, 라디오, 세탁기 등 국내 최초의 제품을 양산하며 고객가치를 선도해왔다.

LG는 1947년 화장품 <럭키크림>을 내놓은데 이어 1951년 화장품 용기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플라스틱 가공사업에 도전했으며 1954년 럭키치약 개발로 한국 치약 산업사를 새로 썼다.

1959년 LG는 국내의 최초 라디오(모델명 A-501)를 개발한 후 1960년 국내 최초의 선풍기, 1961년 자동전화기에 이어 1965년에는 국내 최초의 국산 냉장고인 눈표 냉장고 GR-120 개발에 성공했다.

1966년 개발된 가루형 합성세제 <하이타이>는 주부의 생활패턴을 바꾸었으며 쇄도하는 구입신청으로 인해 공개 추첨방식으로 TV를 판매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흑백TV를 개발했다

이후 1968년 에어컨, 1969년 국내 최초의 세탁기인 백조세탁기, 1976년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한 PVC 창호인 <하이샤시>, 1977년 컬러TV, 1982년 국내 최초 마이크로컴퓨터 <마이티>를 개발해 명실상부하게 전자와 화학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1/03>